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전통시장 농지은행사업 홍보

윤 김상준기자 | 승인 2026.02.18 17:23 | 10면

설 명절 맞이해 합천 전통시장 찾아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설 명절을 맞이해 합천 전통시장을 찾아 2026년 달라지는 농지은행 제도 개선 사항과 홍보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이주현)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합천 전통시장을 찾아 2026년 달라지는 농지은행 제도 개선 사항과 확대된 지원 내용을 알리고 농업인들의 이해도 제고와 사업참여 활성화를 돕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농지임대수탁사업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임차인 지정이 가능해지고 기존 2.5% 임대수탁(사용대위탁) 수수료를 전액 감면에 대한 내용 등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전년도에는 농지은행사업비 90억을 집행해 1,068농가, 276ha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농 영농 정착과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 바 있다.

2026년도는 전년보다 52% 늘어난 1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농에게는 안정적인 농지 공급으로 영농규모화를 지원하고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영농경력 요건을 완화해 고령농업인 사업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농지은행사업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